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순교자 성월, 연중 제23주일
제31권 41호(가례) 2011.9.4

[묵상]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모든 계명은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기에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은
죄 중에 있는 이가 그의 잘못을 깨달아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얻는다 해도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전부를 잃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잘못을 깨우쳐 주는 말은
사랑하는 이 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외면해서 형제를 잃게 되면
하느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형제의 사랑이 담긴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에게 매인 것은 하느님께도 매이고
형제에게 풀린 것은 하느님도 푸십니다.
서로의 화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바로 그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오후 2:00
	예비자 교리반	오후 8:00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전신자 성경통독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튼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울뜨레아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낮미사 후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발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권순봉 요안나, 변세연 대건안드레아, 김종호, 손영달 & 강소아
	(생)김석기 스테파노 가정, 변해경 올리아나, 강호광 스테파노 & 신정원 마리아
주 일 낮 미사	(연)조정림 요셉, 오진 베드로, 엄은섭 도로테오, 민소에 모 니카, 고준희 제임스, 엄익찬 안토니오, 김인영 베드로, 반영 선 도미니카, 김인주 미카엘 & 이달자 마리아, 김중환 야고보
	(생)우영희 엘리사벳, 김동길 바오로 & 김재희 모니카, 손희성 로렌조, 손세호 시몬 & 손선남 레나타 가정, 김진희 골롬바, 박진숙 엘리사벳, 김구해 마리아, 정동호 하상바오로 & 정병옥 올리아, 엄세중 그레고리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예제키엘(Ezekiel) 20,7-9

화답송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어서 와 앞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당신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트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3,8-10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복 음 마태오(Matthew) 18,15-20

영성체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45	182	182
봉헌	249	255	254
성체	빛 되신 주	309	309
파견	213	339	345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악의 세력들이 위협하는 생명

104). 묵시록에서 "여자"의 "큰 표징"에는 "또 다른 표징" 즉
"큰 붉은 용"(묵시 12,3)이 함께 등장한다. 이 용은 사탄, 개인
적인 악의 힘과 아울러 역사 안에서 활동하며, 교회의 사명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도 마리아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에 빛을 비추어준다.
사실, 악의 세력이 지닌 적대감은 교활한 저항으로서, 예수님
의 제자들을 직접 공격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어머니를 향한
다. 당신 아드님을 위협한 위협으로 여겨 두려워하는 사람들
로부터 아드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요셉과 아기와 함
께 예집트로 피난을 가셔야만 했다.(마태 2,13-15 참조).

그러므로 마리아는 교회로 하여금, 생명은 선제나 선과 악 사
이의, 빛과 어둠 사이의 엄청난 투쟁의 핵심에 있다는 것을 깨
닫게 해준다. 용은 "아기를 낳기만 하면"(묵시 12,4 참조) 삼켜
버리려고 한다. 그 아기는 "때가 찼을 때"(갈라 4,4) 마리아에게
서 낳아주신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시대에 더욱더 많은 백성들을 그분께 봉
헌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 아기는 모든 사람들, 모든
아기들, 특히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모든 힘없는 아기들의 형
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공의회가 환기시키듯이 "성자께서는
사실 당신의 강생으로 어떤 의미에서 당신을 모든 사람과 일
치시키셨기"3)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들의
"육체" 안에서 당신을 계속 계시하시며, 우리들과의 형제애 안
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므로 인간 생명에 대한 거부,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실제로는 그리스도께 대한 거부인
것이다. 이것은 매력적이지만 노력을 요구하는 진리이며, 그리
스도께서 계시해 주시고, 그분의 교회가 계속 꾸준히 선포하
고 있는 진리이다.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듯이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마
태 18,5).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
다."(마태 25,40).

부활의 광채

105). 천사는 다음과 같이 안심시키는 말로써 마리아에게 잉
태를 예고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
은 안되는 것이 없다."(루가 1,30.37). 실로 동정 성모님의 전
생애는 하느님께서 당신 가까이에 계시며, 그분께서 섭리로
보살피 주신다는 확신으로 차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에게
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는 광야에서 "하느님께서.....마련해 두
신 곳"(묵시 12,6)을 발견한다. (◆계속)

공동체 생활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서로를 너무 미워하여 툭하면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서로 폭력을 휘두르며 크게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금붕어가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금붕어는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다른 금붕어는 이제 혼자서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 금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금붕어의 몸이 썩기 시작하면서 물 역시 악취를 풍기며 썩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 특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듯이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지내기에 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가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직장에서 동료들과, 지역에서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즐거울 수도, 아니면 슬프고 버거운 인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다른 이가 나에게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서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 화해하도록 타일러 주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타인이 나에게 잘못을 하였을 때 잘못을 하지 않은 내가 잘못된 사람에게 가서 먼저 화해를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잘못된 사람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잘못 속에 주저앉아 체면과 고집, 불안 속에서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록 내가 잘못하지는 않았지만 먼저 능동적으로 화해와 용서를 청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얻는 방법이요, 믿는 이의 자세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활하는 우리들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크게나 작게나 실수를 범하고 다른 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자신도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 있다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끄러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아름다운 존재인 것은 상처가 없는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가 깊고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것을 진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끄러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주님의 품 안에서 이웃과 함께 용서를 청하고 화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우리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더욱 배려해 주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였습니다.

◆고준석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임정빈 보스코	엄영숙 마리아	채승희 에스티
제1독서자	갈유현 미카엘	김교복 레오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김정아 아나스타시아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린스 남 2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례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김태형 가브리엘	권오상 바오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권순길 체칠리아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2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4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9월 순교자 성월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
12일(월)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두대 봉헌, 미사에물 사무실에서 접수중

◆ 백삼위 본당의 날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 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이동 : 9월18일 (주일) 한국의 백삼위 성인을 주보성인으로 모신 본당은 이날을 본당의 날로 제정, 기념미사(낮 11시)와 새로 조성한 야외십자가의 길 14처를 봉헌하며 아울러 세례식을 갖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참례 바랍니다.

◆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종합예술대전

- 개막 리셉션 : 11일(주일) 오후1시 강당. 25일까지 전시
- * 작품신청 마감 : 오늘 주일(4일)까지

◆ 백삼위 신심단체 '1인1단체 가입' 캠페인 : 단체소개

본당 각 신심단체 활성화 및 회원가입 확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일미사 후 '우리 단체에 오세요!' 소개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양업회, 요셉회, 대전회, 성모회에 이어 이번 주일은 자모회 차례입니다. 앞으로 남은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일 : 안나회 ▶ 25일 : 빈첸시오

▶ 10월2일 : 레지오 마리아 ▶ 10월9일 : 배론청년회

◆ '야외 십자가의 길' 조성 마무리 단계

본당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조성되는 야외 십자가의 길 14처(the Way of the Cross=14 Stations of the Cross)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성모님 동산앞 잔디밭에 조경작업중인 십자가의 길은 오는 9월18일(주일) 본당의 날에 맞춰 완공될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중 주차장 사용과 조형물 주변잔디 왕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68차 남가주 M.E. 첫주말 수료자 환영식

- 일시 : 오늘 주일(4일) 오후 6시, 강당
- 2쌍 부부 수료 : 김병록 요셉 & 김지희 체칠리아
유석영 레오 & 신혜정 로사

◆ 묵주기도 30만단 봉헌 목표달성(105%)... 총 316,697단

본당설립 30주년을 맞아 금년 1월부터 시작한 신자들의 묵주기도 30만단 받치기가 9월1일 현재 총 31만6천6백97단을 기록함으로써 목표를 105.6% 달성했습니다.

각 구역별 봉헌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런스 동구역 : 44,158단 ● 토런스 서구역 : 64,128단
- 토런스 남구역 : 19,788단 ● 토런스 북구역 : 26,504단
- 하버/카슨 구역 66,281단 ● P.V.구역 : 75,022단
- 기타 : 20,816단 ▶ 총 316,697단

* 앞으로 묵주기도 30만단 이어가기 행사는 계속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묵주기도 봉헌표를 제대앞에 마련된 봉헌함에 넣어 주십시오.

◆ 제물봉헌 : 제병과 포도주만 봉헌합니다.

9월부터 주일 낮시미사에 촛불봉헌은 없습니다. - 전례본과 -

◆ 자동차 축성

- 일시 : 11일(주일) 낮 11시미사 직후 사제관앞
- 미사시작 전에 사제관앞 파킹장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 주보 광고에 협찬해주시는 스폰서들께 감사드립니다.

백삼위 주보에 게재되는 교우업소들 애용합니다!

◆ 주일학교 / 한국학교 9월11일(주일)부터 개강

긴 여름방학을 끝내고 다음주일부터 백삼위 주일학교와 한국학교도 개학합니다. 각종 모임시 각교실의 테이블과 의자를 옮겨 사용했을 경우 반드시 원위치로 돌려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탁입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9월4일(주일) : 레이버데이 연휴로 친교자리 없습니다.
- 9월11일(주일) : 토런스 북(콩나물김치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금영도	김기석	김병태	김병학	김정희
	김종문	박기돈	박상준	박종렬	박홍룡	반비오
	변복순	신경훈	양영관	엄세중	오세원	유근태
	윤화경	윤희동	이문중	이병우	이용무	장영진
	정열모	정혜영	최수복	최순옥	최의수	한금순
	한혜숙	송마이클				
합계 : \$3,880						
미사헌금 : \$2,662						
성전헌금	강인모	금영도	김기석	김병학	김정희	김종문
	박기돈	박종렬	반비오	변복순	신경훈	양영관
	엄세중	오세원	유근태	윤화경	윤희동	이문중
	이병우	이용무	정열모	정혜영	최수복	최의수
	한금순	한혜숙	송마이클			
합계 : \$2,030						
한남체인 도네이션 : \$480						
주보후원 : \$250						

❖ 새학기 등록 접수 중 ❖

◆ 주일학교

- 등록비 : 첫째 \$120, 둘째 \$80, 셋째 \$60, 넷째 수업료 없음
- 2차접수 : 9월11일(주일)까지
- 자모회비 : 한가정당 \$40
- 문의 : 주일학교 교장 이인석 비오 ☎(213)258-8665

◆ 백삼위 한국학교

- 등록일자 : 9월11일(주일)까지
- 등록금 : 첫째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 무료
- 수업시작 : 9월11일(주일) 낮 12시~오후 3시
- 대상 : K~12, SAT II
- 문의 : 김본정 율리아 한국학교장 ☎(310)713~2669

남가주 소식

◆ 성모님을 통한 예수님계의 봉헌 및 봉헌 갱신 미사

- 일시 : 9월8일(목) 오후 7시
- 장소 : LA 성 바실 천주교회 본당
- 준비물 : 묵주와 가톨릭 성가집
- 문의 : 주배석 비오 ☎(818)571-8438

◆ 연극 '바보 추기경' 공연

-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랑과 나눔의 삶을 표현한 연극 '바보 추기경'이 FIAT재단 주최로 LA와 OC에서 두차례 공연을 갖습니다. 한국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연극 '바보 추기경'은 평범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바보'가 될 수 있다는 증거이자 '바보로서의 삶'을 초대하는 초대장이 될 것입니다.
- OC 공연 : 9월10일(토) 오후 4시30분,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에나하임(714)702-9830
 - LA 공연 : 9월11일(주일) 오후 4시, 성 프란치스코 성당 2040 Artesia Bl. 토런스 (310)324-8159
 - 티켓 : 예매시 \$30. 당일\$40

◆ "말씀의 초막절" 축제에 초대합니다.

- 일시 : 9월11일(주일)~18일(주일)
- 개회미사 : 11일 오후 4시, 주례사제 배기현 신부
- 폐막미사 : 18일 오후 4시
- 장소 : 미주 성서모임 센터(부에나파크, ☎714-521-1345)

◆ 제15회 남가주 한인 가톨릭 미술가회 정기 전시회

- 일시 : 9월17일(토)~30일(금), 리셉션 : 17일 오후4시
- 주제 : "너희는 내 사랑안에 머물러라"
- 장소 : Lee & Lee 갤러리(3130 Wilshire Bl. #502 LA)
- ☎(213)365-8285

◆ 성 골롬반 청소년 선교회원 모집

- 대상 : 9~10학년 재학중인 고등학생
- 오리엔테이션 : 9월18일(주일) 오후 4시

소공동체 9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이순자 비비안나 834-8856 9/2(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박선화 안나 325-3888 9/10(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0369 9/9(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진영태 요한 970-2037 9/18(주일) 오후4시30분 텔슨파크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박명순 안나 720-2876 9/16(금) 오전 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송루카 송마오로 320-0855 9/16(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경수 헬레나 634-6923 9/8(목) 오전 11시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송미카엘 540-9032 9/10(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영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권오상 바오로 257-8416 9/9(금)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박진수 스테파노 710-8078 9/10(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정은주 세실리아 377-6328 9/9(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배재일 미카엘 544-9460 9/9(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9/9(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이귀란 아녜스 617-3568 9/13(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휴회
-----------	----

다음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나는 신자다.”

로 TV 방송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신자들도 저런 식의 서바이벌 경연을 펼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궁금해진다.

오래전 내가 아는 한 자매는 신앙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산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자매의 모습을 보면 편안함과 행복이 온몸으로 느껴지고, 그 행복이 흘러넘쳐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 행복해지는 것 같았다.

그 모습에 이끌려 성당을 찾게 되었는데 내가 찾는 신앙은, 내가 찾는 주님은 마치 미로 속을 헤매듯 종잡을 수 없고 때론 아득히 멀게만 느껴지며, 내 신앙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지면서부터 막연히 느끼던 의문 하나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였다. 분명, 무언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그 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인간답지 못하다는 느낌을 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종교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우연히 시작하게 된 성경 공부는 나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많은 묵상을 통하여 나 자신을 되돌아 볼 기회가 있었고, 또한 내 삶을 보다 더 사랑하기 위하여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그동안 무의미하게 지나가던 나의 모든 일상이 새롭게 느껴지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축복속에 살고 있는지를 차츰차츰 깨닫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부터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온통 감사 할 일들로 가득한 하루이다.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 푸른 하늘, 새 소리, 음악 소리, 아름다운 꽃들, 심지어 지금 이렇게 편히 숨 쉬고 있음이 축복이었다.

그렇다, 주님은 이미 내안에 계시고 나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고 있었지만, 나는 여태껏 그것을 몰랐던 것이다. 또한 참된 행복은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께 감사함에서 비롯됨을 알게 되었다. 이제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으로 내자신을 성화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행복을 나누는 것만이 참다운 신앙이요, 주님의 뜻을 믿고 그길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길 것을 다짐해본다. 주님의 옷자락을 끝까지 놓지 않으며...

◆김문석 미카엘 / 부산교구 이기대 성당

주보로 배우는 교리

☞ 교무금과 헌금의 차이?

성서에 보면 하느님의 몫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일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시키시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내리셨습니다.

“땅의 십 분의 일은,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모두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다.”(레위 27,30-31). 신약성서에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십일조를 철저히 지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마태 23,23-24).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재산을 내놓아 공동 소유로 하면서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는 이상적인 공동생활을 했습니다.(사도 4,32-37). 교회는 구약과 신약의 이러한 십일조 전통을 계승하여 교회 유지와 선교사업 등을 위해 매월 의무적으로 헌금을 하도록 하는데 이를 교무금이라 합니다.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일”(마르 12,17)은 바로 헌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와 곡물 같은 것을 봉헌하여 함께 나누어 먹고 나머지는 불우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11세기부터는 빵과 포도주 대신에 헌금만을 봉헌하였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헌금은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적인 신앙심으로 미사 중에 자기희생의 상징제물로 봉헌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무엇을 바치고자 할 때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나라의 정성을 가지고 바치도록 해야 하며 정성 없이 혹은 마지못해서 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도움말 : 서울대교구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전호에 이어-) 절에서 올리는 아버지의 49재를 천정식구들과 따라한 어느 가톨릭 신자의 케이스 -

49재'라는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소용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녀 된 도리에서 온 가족이 아버님 사랑을 기리는 자리를 거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불경을 따라 읽고 불상에 절을 하는 의미를 헤아려야 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가장 소중한 '딸의 도리'는 아버님께서서 어서 빨리 하느님을 뵙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자비를 청하고 의탁하는 '연미사'를 봉헌하는 일이 제일입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분께 기도 드림에는 때와 장소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부처님을 모신 불당에서 올리는 기도를 받지 않으시거나 몰라라 하시지 않습니다. 때문에 침묵 가운데 온 정성을 쏟아 씌움이 주모경을 바칠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가족의 슬픔과 아픔에 함께 하되 더 좋은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의 기쁨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아직 가톨릭 신앙을 갖지 못한 가족들을 그분께로 이끌려는 수고는 마침내 세상의 '헛것'들에서 벗어나 진리이신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행복을 선물할 것입니다.

◆도움말 : 장재봉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